

글로벌 인재포럼 2022

[기조세션2]

대학과 지역 성장의 선순환 구조

2022. 11. 2.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최 병 옥

한밭대학교 교수

choi@hanbat.ac.kr

2021년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

朝鮮日報

사회 > 교육

서울·수도권 대학까지 올해 신입생 미달 사태

저출산에 지원자 줄며 정원 못채워 전국 162곳 2만6100명 추가 모집

박세미 기자

입력 2021.02.23 03:27



사회 > 교육

무너지는 지방대... 200명 이상 정원미달 18곳

대구대 780명·원광대 710명 미달, 전체 1만명 추정... 작년 3배 수준

곽수근 기자 박세미 기자

입력 2021.03.15 03:02



분 달은 캠퍼스, 속 캐는 주민 - 지난 11일 전북 군산 서해대 교정에서 한 주민이 자란 속을 캐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달 28일 폐교 조치되면서 '유령 캠퍼스' 처럼 변했다. 1974년 개교한 지 47년 만이다. 서해대뿐 아니라 전국 곳곳 지방대들이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로 부러부터 흔들리고 있다. /김영근 기자

올해 대입에서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가운데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이 30곳이 넘고, 이 가운데 18개 대학은 미달 규모가 200명 이상이면서 정원의 10% 이상 신입생을 뽑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대학의 미달 인원(6812명)은 작년(491명)의 14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 4년제 대학 미달 인원(3650명)의 약 2배에 달한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 위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사IN

지방 국립대도 못 피한 신입생 정원 미달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었다. 진짜 문제는 수도권 이외 지역 사립대에서 발생했다. 앞으로 5년간 극도로 악화 될 지방의 현실이다.



김동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 | 입력 2021.03.17 01:06 704호

'벚꽃피는 순서대로 문닫는다'더니...입시 부진 책임 대구대 총장 사퇴의사

중앙일보 | 입력 2021.03.07 10:58 업데이트 2021.03.07 16:23

全北日報

최악의 신입생 미달 사태, 원광대 구성원들 총장 사퇴요구 잇달아

오백세종 | 입력 2021-03-14 18:19 | 수정 2021-03-14 18:21 | 댓글 1

총학생회 SNS 입장문, 총장 사퇴요구
전날(11일)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도 성명, 사퇴 촉구

2021년 대학 정원 미충원 사태 (4만명)

(단위: 명, %)

구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모집 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 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 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155,176	130,986 (84.4)	24,190 (15.6)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68,011	58,902 (86.6)	9,099 (13.4)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92.2)	180,581 (92.2)	15,367 (7.8)	87,175	72,084 (82.7)	15,091 (17.3)

-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내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외 입학생 제외
- 자료: 교육부

지역별 일반대학 신입생 충원율 (2020-2022년)

권역	시도	2022 정원내 입학정원	2022 전체 입학자	2022 정원내 입학자	2022 정원외 입학자	2022 전체 총원율	2022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1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0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수도권	서울	74,321	85,951	74,104	11,847	115.6	99.7	99.5	99.7
	경기	37,763	41,201	37,265	3,936	109.1	98.7	98.5	99.1
	인천	6,941	7,700	6,933	767	110.9	99.9	98.7	99.9
	소계	119,025	134,852	118,302	16,550	113.3	99.4	99.2	
충청권	대전	18,212	18,899	17,697	1,202	103.8	97.2	94.8	99.4
	세종	2,788	2,995	2,760	235	107.4	99.0	98.6	98.7
	충남	27,155	29,012	26,587	2,425	106.8	97.9	96.4	99.6
	충북	15,987	16,183	15,109	1,074	101.2	94.5	93.0	99.4
	소계	64,142	67,089	62,153	4,936	104.6	96.9	95.0	
대경권	대구	9,852	10,546	9,834	712	107.0	99.8	98.5	99.9
	경북	24,776	24,145	22,725	1,420	97.5	91.7	88.1	96.6
	강원	15,584	15,071	14,067	1,004	96.7	90.3	89.2	99.3
	소계	50,212	49,762	46,626	3,136	99.1	92.9	90.6	
동남권	부산	29,407	30,142	27,841	2,301	102.5	94.7	93.0	98.7
	울산	3,148	3,343	3,130	213	106.2	99.4	96.9	99.5
	경남	12,258	11,466	10,797	669	93.5	88.1	85.0	95.4
	소계	44,813	44,951	41,768	3,183	100.3	93.2	91.1	
호남제주권	광주	13,870	14,520	13,727	793	104.7	99.0	96.5	99.6
	전남	8,198	8,251	7,635	616	100.6	93.1	89.6	95.6
	전북	15,042	15,113	13,842	1,271	100.5	92.0	89.3	99.6
	제주	2,545	2,406	2,232	174	94.5	87.7	89.4	91.4
	소계	39,655	40,290	37,436	2,854	101.6	94.4	92.1	
합계		317,847	336,944	306,285	30,659	106.0	96.4	94.9	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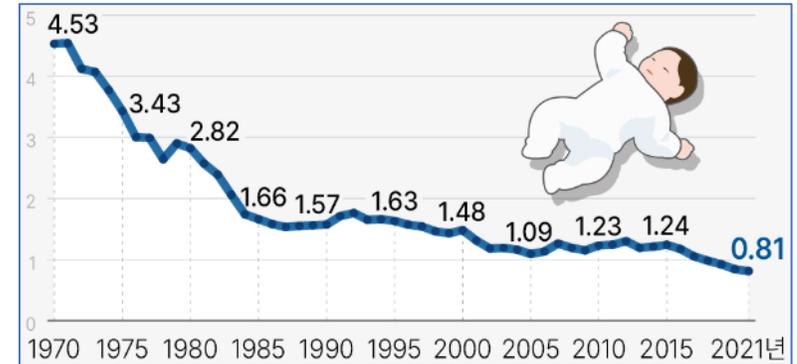
지역별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2020-2022년)

권역	시도	2022 정원내 입학정원	2022 전체 입학자	2022 정원내 입학자	2022 정원외 입학자	2022 전체 총원율	2022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1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2020 정원내 신입생 총원율
수도권	서울	15,354	19,093	15,292	3,801	124.4	99.6	98.8	100.0
	경기	46,133	50,736	38,627	12,109	110.0	83.7	82.2	97.1
	인천	6,585	7,308	5,771	1,537	111.0	87.6	93.3	100.0
	소계	68,072	77,137	59,690	17,447	113.3	87.7	86.6	97.5
충청권	대전	6,843	6,092	5,076	1,016	89.0	74.2	71.8	90.1
	세종	1,100	1,300	1,035	265	118.2	94.1	82.3	96.2
	충남	6,334	5,684	4,783	901	89.7	75.5	76.1	89.0
	충북	5,618	5,040	4,309	731	89.7	76.7	72.6	87.0
	소계	19,895	18,116	15,203	2,913	91.1	76.4	74.2	89.7
대경 강원권	대구	12,774	14,839	12,064	2,775	116.2	94.4	88.2	94.6
	경북	10,550	12,356	9,329	3,027	117.1	88.4	87.3	93.2
	강원	3,536	3,802	3,022	780	107.5	85.5	82.0	90.1
	소계	26,860	30,997	24,415	6,582	115.4	90.9	86.5	93.2
동남권	부산	9,244	9,985	7,814	2,171	108.0	84.5	75.1	85.8
	울산	2,613	3,167	2,403	764	121.2	92.0	93.0	97.8
	경남	7,395	7,753	6,407	1,346	104.8	86.6	84.5	90.0
	소계	19,252	20,905	16,624	4,281	108.6	86.3	81.5	85.3
호남제주권	광주	5,900	7,098	5,585	1,513	120.3	94.7	92.7	97.7
	전남	7,110	7,008	5,878	1,130	98.6	82.7	84.1	88.5
	전북	6,301	6,958	5,544	1,414	110.4	88.0	91.2	96.4
	제주	2,512	2,447	1,931	516	97.4	76.9	78.9	94.3
	소계	21,823	23,511	18,938	4,573	107.7	86.8	87.6	91.8
합계		155,902	170,666	134,870	35,796	109.5	86.5	84.4	94.3

미충원 사태의 배경

- **저출산 및 고령화로 학령인구 감소**
 - ✓ 합계출산율 : 0.81 (2021)
 - ✓ 65세 이상인구 비중 : 16.5% (2021)
- **학령인구 감소**
 - ✓ 13,361천명 (1990) → 7,821천명 (2020)
- **수도권 쏠림 현상**
- **코로나-19 팬데믹**
- **기술 산업 환경 급변**
 - ✓ 신산업 시대의 변화와 혁신 요구에 대학의 대응 한계

합계출산율(명)



<https://www.kscoramdeo.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6>

학령인구 및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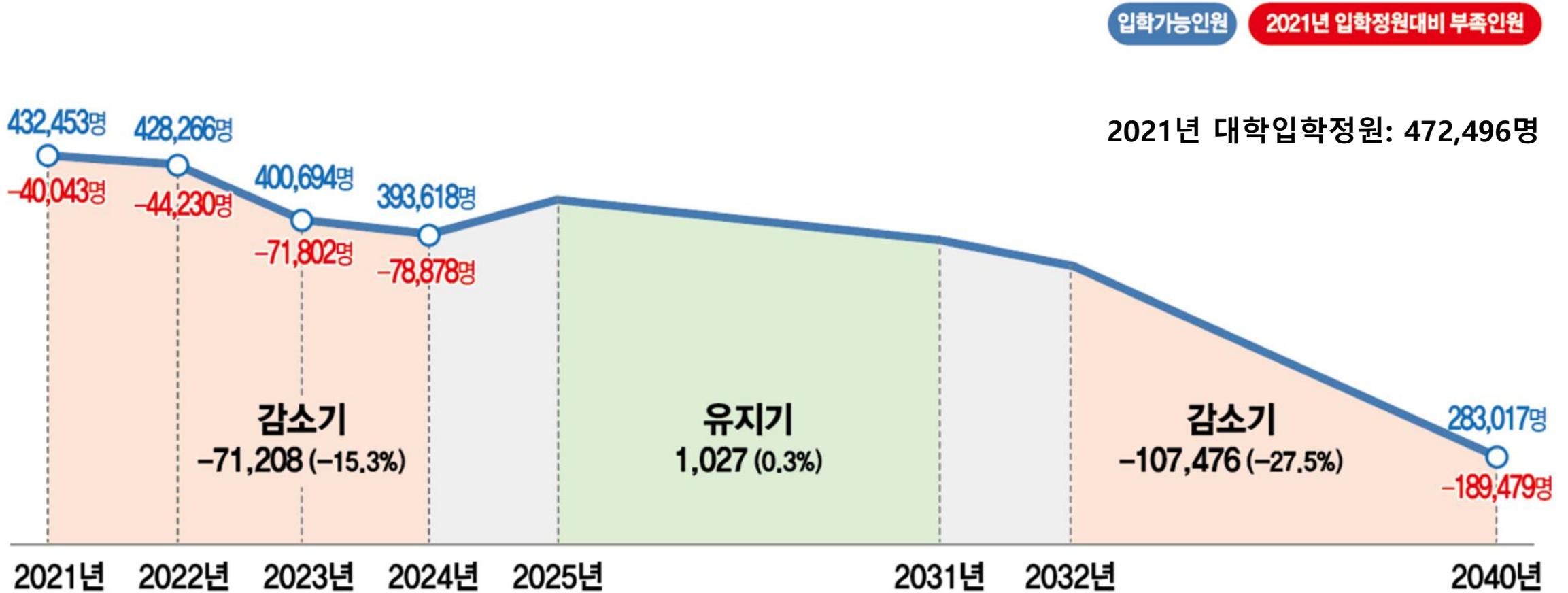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9669>

대학입학 가능 자원 전망



대입정원
47만 2,496명 (2021년)

대학입학 가능 자원 전망 (2021~2040)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57>

지역별 일반대학 중도탈락율 (2021년 기준)

권역	시도	재적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B)	중도탈락 학생비율 (%) (B/A) × 100	재적학생 (신입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신입생) (B')	중도탈락 학생(신입생) 비율 (%) (B'/A') × 100
수도권	서울	509,554	17,382	3.4	85,755	7,196	8.4
	경기	235,469	10,472	4.4	40,847	2,951	7.2
	인천	44,126	1,550	3.5	7,749	572	7.4
	소계	789,149	29,404	3.7	134,351	10,719	8.0
충청권	대전	105,348	5,617	5.3	18,373	1,250	6.8
	세종	17,504	902	5.2	2,916	319	10.9
	충남	158,488	8,434	5.3	28,951	2,003	6.9
	충북	94,551	5,182	5.5	16,026	1,052	6.6
	소계	375,891	20,135	5.4	66,266	4,624	7.0
대경 강원권	대구	62,188	2,742	4.4	10,504	718	6.8
	경북	141,640	8,838	6.2	23,648	1,989	8.4
	강원	94,317	5,059	5.4	15,328	1,048	6.8
	소계	298,145	16,639	5.6	49,480	3,755	7.6
동남권	부산	182,128	10,327	5.7	30,922	2,503	8.1
	울산	19,924	865	4.3	3,236	173	5.3
	경남	75,558	4,645	6.1	12,036	898	7.5
	소계	277,610	15,837	5.7	46,194	3,574	7.7
호남제주권	광주	81,332	4,797	5.9	14,471	1,263	8.7
	전남	43,282	3,915	9.0	7,899	898	11.4
	전북	90,915	5,811	6.4	15,042	1,161	7.7
	제주	14,953	922	6.2	2,398	181	7.5
	소계	230,482	15,445	6.7	39,810	3,503	8.8
합계		1,971,277	97,460	4.9	336,101	26,175	7.8

지역별 전문대학 중도탈락율 (2021년 기준)

권역	시도	재적학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B)	중도탈락 학생비율 (%) (B/A) × 100	재적학생 (신입생) (A')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신입생) (B')	중도탈락 학생(신입생) 비율 (%) (B'/A') × 100
수도권	서울	56,774	3,755	6.6	18,966	1,466	7.7
	경기	184,099	14,454	7.9	51,838	3,833	7.4
	인천	24,801	1,710	6.9	7,920	617	7.8
	소계	265,674	19,919	7.5	78,724	5,916	7.5
충청권	대전	23,992	2,322	9.7	6,638	539	8.1
	세종	4,273	287	6.7	1,209	71	5.9
	충남	22,061	1,685	7.6	5,918	480	8.1
	충북	18,558	1,648	8.9	5,254	445	8.5
	소계	68,884	5,942	8.6	19,019	1,535	8.1
대경 강원권	대구	48,756	4,417	9.1	14,262	1,233	8.6
	경북	37,690	3,197	8.5	12,612	1,155	9.2
	강원	15,751	1,911	12.1	3,918	332	8.5
	소계	102,197	9,525	9.3	30,792	2,720	8.8
동남권	부산	39,485	3,947	10.0	10,081	977	9.7
	울산	12,275	706	5.8	3,249	215	6.6
	경남	29,540	1,979	6.7	7,991	501	6.3
	소계	81,300	6,632	8.2	21,321	1,693	7.9
호남제주권	광주	24,078	1,880	7.8	7,016	634	9.0
	전남	22,003	2,411	11.0	7,385	907	12.3
	전북	23,195	1,618	7.0	7,402	545	7.4
	제주	12,602	1,015	8.1	2,597	310	11.9
	소계	81,878	6,924	8.5	24,400	2,396	9.8
합계		599,933	48,942	8.1	174,256	14,260	11.9

지역별 일반대학 재학생 충원율 (2021년 하반기)

권역	시도	학생정원*	전체 재학생	정원내 재학생	전체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수도권	서울	297,896	346,232	279,259	116.2	93.7
	경기	151,363	159,040	138,240	105.1	91.3
	인천	27,445	28,717	24,435	104.6	89.0
	소계	476,704	533,989	441,934	112.0	92.7
충청권	대전	73,794	72,077	64,540	97.7	87.5
	세종	10,897	11,316	10,121	103.8	92.9
	충남	108,774	109,130	95,550	100.3	87.8
	충북	65,131	62,185	56,667	95.5	87.0
	소계	258,596	254,708	226,878	98.5	87.7
대경 강원권	대구	105,335	103,949	94,007	98.7	89.2
	경북	101,886	94,016	84,929	92.3	83.4
	강원	64,175	59,823	54,136	93.2	84.4
	소계	271,396	257,788	233,072	95.0	85.9
동남권	부산	123,145	122,329	109,131	99.3	88.6
	울산	12,578	12,703	11,441	101.0	91.0
	경남	55,534	50,259	46,175	90.5	83.1
	소계	191,257	185,291	166,747	96.9	87.2
호남 제주권	광주	57,027	57,587	51,479	101.0	90.3
	전남	32,539	29,891	27,149	91.9	83.4
	전북	62,457	61,533	53,896	98.5	86.3
	제주	10,599	9,472	8,565	89.4	80.8
	소계	162,622	158,483	141,089	97.5	86.8
합계		1,360,575	1,390,259	1,209,720	102.2	88.9

*학생모집정지인원 제외

지역별 전문대학 재학생 충원율 (2021년 하반기)

권역	시도	학생정원*	전체 재학생	정원내 재학생	전체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수도권	서울	37,209	38,451	32,031	103.3	86.1
	경기	119,335	118,174	95,159	99.0	79.7
	인천	14,780	15,858	12,628	107.3	85.4
	소계	171,324	172,483	139,818	100.7	81.6
충청권	대전	18,515	15,798	13,464	85.3	72.7
	세종	3,090	2,949	2,548	95.4	82.5
	충남	15,551	13,946	11,928	89.7	76.7
	충북	14,209	12,250	10,531	86.2	74.1
	소계	51,365	44,943	38,471	87.5	74.9
대경 강원권	대구	33,760	35,807	28,229	106.1	83.6
	경북	30,009	30,363	23,693	101.2	79.0
	강원	10,143	9,516	7,751	93.8	76.4
	소계	73,912	75,686	59,673	102.4	80.7
동남권	부산	24,761	22,874	18,518	92.4	74.8
	울산	7,372	8,605	6,742	116.7	91.5
	경남	19,824	19,482	16,278	98.3	82.1
	소계	51,957	50,961	41,538	98.1	79.9
호남제주권	광주	14,937	15,733	12,588	105.3	84.3
	전남	18,642	16,124	13,487	86.5	72.3
	전북	16,127	16,868	13,430	104.6	83.3
	제주	7,046	7,087	5,120	100.6	72.7
	소계	56,752	55,812	44,625	98.3	78.6
합계		404,968	396,681	311,051	98.0	76.8

*학생모집정지인원 제외

전국 대학 입학생 수 증감률

전국대학입학생수 증감률

2010년 대비 2020년 증감률

전국 -8.2%

인천 1.8

서울 0.9

경기 -4.7

충남 -15.4

세종 -10.8

대전 -6.1

전북 -14.7

광주 -3.9

전남 -16.4

제주 -5.4



강원 -12.7

충북 -9.4

경북 -15.6

대구 -8.5

울산 -17.9

부산 -11.3

경남 -16.6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근 3년간 정원 감축 현황

● 3년간 감축인원: 16,575명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전체	대상학교 수	60	69	91
	감축인원	2,155	5,043	9,377
수도권 (연평균 24.7%)	대상학교 수	12	21	38
	감축인원	459	1,137	2,848
	비율	21.3	22.5	30.4
지방 (연평균 75.3%)	대상학교 수	60	72	89
	감축인원	1,696	3,906	6,529
	비율	78.7	77.5	69.6

매일경제

수도권大 1천300명 증원 계획...지방대학 반발 커질 듯

"지방대 학생들 다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갈 것" 우려
대학 정원 감축 계획과도 상충...교육부 "별도 정책 고민"
다른 산업·기초학문과의 불균형 문제도 대두

입력 : 2022.07.19 15:00:02 수정 : 2022.07.19 15:06:06 0

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학과 신증설... 수도권大 규제도 풀다

석박사 1102명·학사 2000명·전문대 1000명 증원

1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의 핵심은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불만이 많았던 교육부의 규제들이 이번 반도체 인력 양성을 계기로 상당 부분 풀렸다. 대학이 교원 확보를 '먼 줄여야만 반도체 등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도 허용된다. 교원 외에 교수·교사·수익형 기본재산 등이 필요했던 기존보다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정원 내정은 단일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가 허가를 해주는 개념인데,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미 설치된 첨단 분야 학과 내 별도 정원을 현시적으로 추가해주는 '계약정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제는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나 하는 대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



1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맨 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영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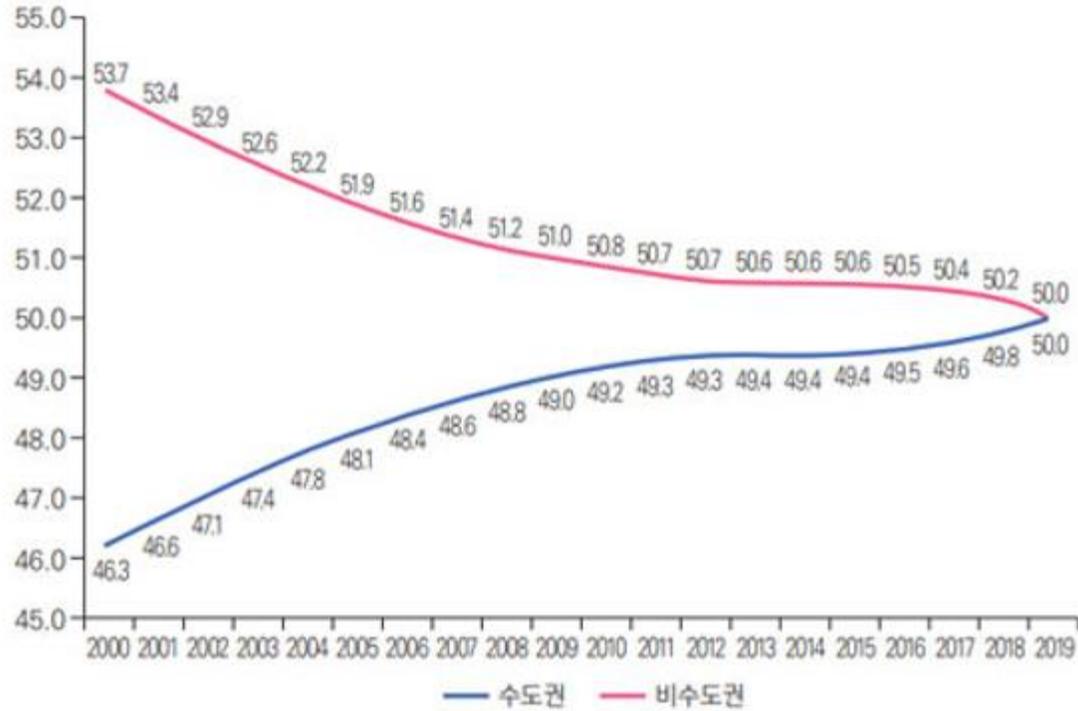
구분	학위	인원	양성 규모	향후 10년 반도체 인력 수요와 공급
정원	석·박사급	반도체특성상화대학 지원, KAIST 등 반도체 전공 과목 확대	7100명	인원차 5만
정원	학사급	반도체특성상화대학 지원, 초·중·고등교육계 대학과 신·대학원 육성 등	2000명	수요 5,92만
정원	석·박사급	4단계 두뇌한국21, 대학원정원구조 등	3000명	인원차 5,42만
비정원	학사급	부처연합형 인력 양성, 다형 인력 양성 혁신공약대학 등	1000명	수요 6,11만
정원	석·박사급	첨단산업 인력 양성 부트캠프, 반도체이커리어, 일학습 병행	5000명	인원차 2,99만
정원	석·박사급	기초·기초	1000명	수요 9만

출처: 도종환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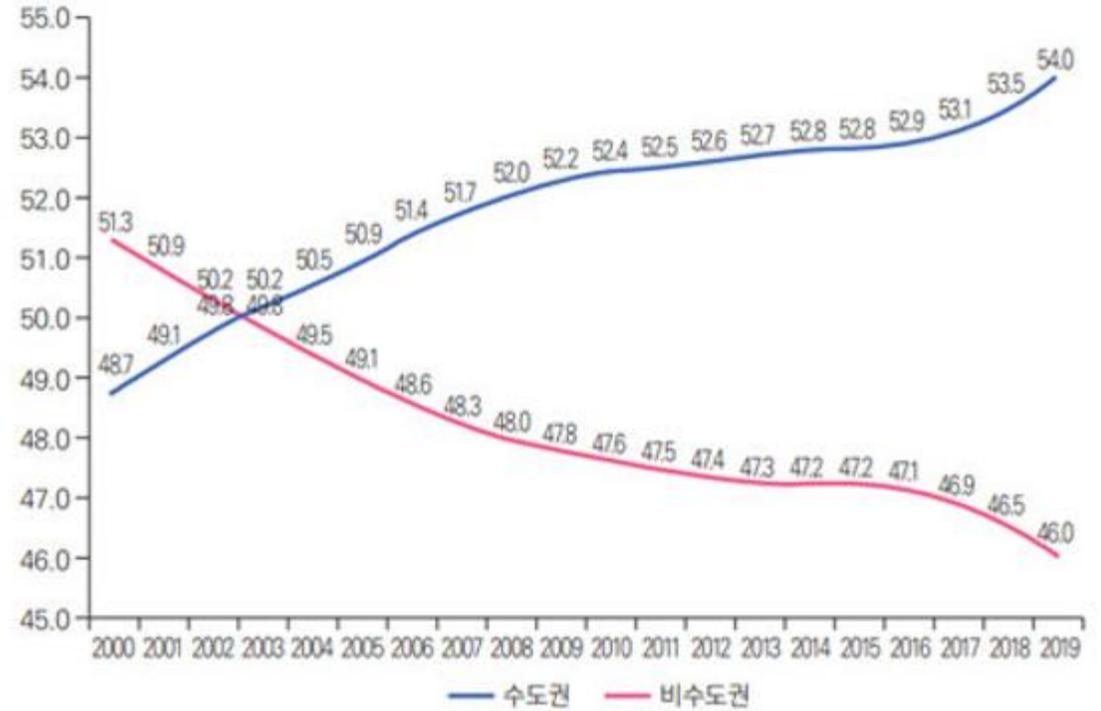
**고등교육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의 감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 쓸림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인구 비중(%) 〉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인구 비중(%) 〉

출처: 강원도의회 정책 Letter (2021. 4.)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위기에 놓여있다.

대학들의 교육재정은 어떠한가?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2020년 기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포항공과대학교	100,006,30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92,800,958
광주과학기술원	80,915,818
한국과학기술원	80,602,607
울산과학기술원	63,934,274
서울대학교	48,606,533
평균	62,870,751

상위 10개 사립대*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연세대학교	35,006,580
차의과학대학교	30,027,020
성균관대학교	28,396,220
고려대학교	27,532,728
가톨릭대학교	25,031,414
아주대학교	23,557,836
한림대학교	23,226,109
한양대학교	22,823,510
연세대학교(미래캠)	21,707,447
한양대학교(ERICA캠)	21,619,080
평균	27,078,630

상위 10개 국립대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부산대학교	20,049,370
전남대학교	19,202,033
충북대학교	18,902,780
제주대학교	18,820,004
경북대학교	18,674,827
전북대학교	18,148,136
경상국립대학교	18,016,900
목포해양대학교	17,915,050
한국해양대학교	17,906,042
충남대학교	17,792,573
평균	18,711,733

*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외

지역별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

권역	시도	총교육비 (원)	재학생 수 (명)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수도권	서울	7,817,680,897,530	433,549	18,031,828
	경기	3,034,989,323,944	203,871	14,886,812
	인천	351,727,541,942	21,047	16,711,529
	소계	11,204,397,763,416	658,467	17,015,884
충청권	대전	728,474,509,683	56,592	12,872,394
	세종	122,891,510,364	7,172	17,134,901
	충남	1,432,553,428,273	101,836	14,067,259
	충북	569,955,745,263	46,737	12,194,958
	소계	2,853,875,193,583	212,337	13,440,310
대경권	대구	310,516,542,462	22,930	13,541,934
	경북	1,595,821,693,150	103,684	15,391,205
	강원	677,598,197,291	44,089	15,368,872
	소계	2,583,936,432,903	170,703	15,137,030
동남권	부산	1,087,995,884,416	94,962	11,457,171
	울산	290,295,603,440	14,081	20,616,121
	경남	432,292,898,603	34,729	12,447,606
	소계	1,810,584,386,459	143,772	12,593,442
호남 제주권	광주	561,256,607,568	48,643	11,538,281
	전남	175,983,336,418	15,275	11,521,004
	전북	563,987,450,838	46,756	12,062,355
	제주	12,748,702,689	1,091	11,685,337
	소계	1,313,976,097,513	111,765	11,756,597
합계		19,766,769,873,874	1,297,044	15,239,861

- 비수도권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12,953,492 원**

(과기특성화대 및 재학생 500인 이하 대학 제외)

대학 특성별 일반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2020년 기준)

학교	학생1인당 교육비 (원)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및 서울대학교	62,870,751
국립대 전체 (서울대 제외)	16,704,039
거점 국립대 (9개)	18,551,598
비거점 국공립대 (19개)	15,342,382
교육대학 (10개)	11,967,942
사립대 전체	15,239,861
상위 10개 사립대	27,078,630
수도권 사립대	17,015,884
비수도권 사립대	12,953,492
일반대학 전체	15,892,60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과 비교 (2018년 기준)

2021년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비교 단위:달러

한국

12,535



초등교육

14,978



중등교육

11,290



고등교육

OECD 평균

9,550



초등교육

11,192



중등교육

17,065



고등교육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 (2018년 기준)

국가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USD)
룩셈부르크	47,694
미국	34,036
영국	29,911
스웨덴	26,147
노르웨이	25,428
캐나다	24,496
네덜란드	20,898
오스트레일리아	20,647
독일	19,324
일본	19,309
핀란드	18,170
프랑스	17,420
이탈리아	12,305
대한민국	11,290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적인 이유로 경쟁력 확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 대학은 더욱 그렇다.

대학들의 경쟁력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대학 경쟁력 (과기특성화대, 국립거점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과학기술 특성화대 등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포항공과대학교	100,006,307	1.2577	635,126	229	3,885,434,194
DGIST	92,800,958	0.7829	392,800	109	1,520,491,367
GIST	80,915,818	1.0359	548,285	54	924,939,300
KAIST	80,602,607	1.1935	632,377	539	6,909,085,143
UNIST	63,934,274	1.1440	459,286	178	755,031,265
서울대학교	48,606,533	1.0544	296,735	598	6,953,454,468

거점국립대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부산대학교	20,049,370	0.6306	128,270	72	2,450,854,847
전남대학교	19,202,033	0.6689	161,204	79	2,320,934,707
충북대학교	18,902,780	0.5900	138,808	38	2,381,488,746
제주대학교	18,820,004	0.4492	109,996	24	494,326,834
경북대학교	18,674,827	0.7323	151,927	112	3,319,912,678
전북대학교	18,148,136	0.6322	144,745	45	1,742,975,248
경상국립대학교	18,016,900	0.4633	103,612	75	1,488,742,805
충남대학교	17,792,573	0.5760	155,768	49	3,158,046,833
강원대학교	16,973,197	0.5623	106,590	15	1,917,051,408

수도권 주요 사립대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연세대학교	35,006,580	0.9759	305,201	392	8,908,229,060
성균관대학교	28,396,220	1.1313	291,561	270	3,941,464,992
고려대학교	27,532,728	0.9006	303,077	429	4,649,037,568
아주대학교	23,557,836	0.6916	176,866	119	5,209,155,971
한양대학교	22,823,510	0.8068	237,240	268	2,064,996,976
한국항공대학교	19,816,157	0.3740	111,065	15	406,671,498
이화여자대학교	19,014,256	0.5350	157,335	84	1,344,139,382
한국공학대학교	18,216,083	0.1536	107,106	18	664,400,005
서강대학교	17,698,410	0.4272	134,738	52	1,063,842,728
인하대학교	16,721,172	0.5853	187,844	18	1,464,090,968
경희대학교	16,035,770	0.7613	122,928	173	4,671,690,388
세종대학교	15,761,330	0.8693	167,173	141	3,388,552,468
중앙대학교	15,616,218	0.8260	177,947	28	1,333,876,995
건국대학교	15,399,076	0.7415	176,570	33	1,069,974,325
건국대학교	15,399,076	0.7415	176,570	33	1,069,974,325
동국대학교	15,357,868	0.6729	109,986	22	1,142,880,581
국민대학교	15,029,766	0.2897	132,157	68	2,065,399,182
가천대학교	14,074,921	0.7897	99,431	32	910,047,163

대학 경쟁력 (과기특성화대, 국립거점대, 수도권 주요 사립대)

-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및 서울대** 등은 재정적으로도 우수한 지원을 받고, 연구, 특허 및 기술이전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수도권 최상위권 대학** 은 재정, 연구, 특허 및 기술이전 모두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등에는 못 미치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거점국립대**는 수도권 최상위 5개 사립대학에 못미치나, 이를 제외한 **수도권 상위권** 사립대학 수준의 대학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거점국립대 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낮은 **수도권 사립대**의 다수가 **거점국립대**보다 높은 연구 수준에 달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 (비거점 국립대 vs 지방 주요 사립대)

비거점 국립대학 (17개)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목포해양대학교	17,915,050	0.2462	156,165	3	46,000,000
한국해양대학교	17,906,042	0.4126	106,476	10	1,597,538,908
목포대학교	17,062,602	0.3527	159,559	8	230,410,044
인천대학교	16,581,179	0.6171	83,301	19	536,116,171
한국교통대학교	16,337,304	0.3240	92,643	39	444,588,000
군산대학교	16,310,350	0.3080	96,061	0	435,454,545
안동대학교	16,086,723	0.2910	74,677	0	180,418,172
한밭대학교	15,924,853	0.4660	88,576	30	563,463,000
창원대학교	15,716,688	0.2146	109,581	6	895,360,100
강릉원주대학교	15,689,119	0.2625	64,491	4	259,854,560
순천대학교	15,594,233	0.3475	106,766	4	228,327,273
서울시립대학교	15,457,337	0.4046	118,244	37	259,263,97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316,624	0.7257	124,892	23	822,545,454
부경대학교	14,936,935	0.4905	115,728	42	931,019,318
금오공과대학교	14,900,614	0.4849	118,606	4	379,898,178
한경대학교	13,017,341	0.4133	79,811	0	26,000,000
공주대학교	12,285,058	0.4144	95,096	6	218,681,620

지방주요 사립대 (20개)	학생1인당 교육비 (원)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실적 (국제기준)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남자, 천원)	해외특허 출원수 (건)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원)
한림대학교	23,226,109	0.5317	80,867	3	1,021,432,492
연세대학교(미래캠)	21,707,447	0.4457	85,624	8	221,300,000
순천향대학교	20,724,389	0.4185	60,226	18	337,747,043
울산대학교	20,616,121	0.4123	92,331	96	952,298,354
건국대학교(글로벌)	17,310,831	0.3859	37,982	10	678,049,978
고려대학교(세종)	16,880,141	0.3878	131,264	21	471,872,727
한동대학교	16,757,828	0.1547	55,148	5	110,002,000
인제대학교	15,953,089	0.4176	55,387	27	964,061,210
영남대학교	14,118,891	0.7644	81,675	38	656,264,500
동국대학교(WISE)	13,952,495	0.3475	45,608	3	42,595,174
선문대학교	13,920,189	0.2327	23,874	0	271,254,548
원광대학교	13,802,865	0.2524	59,478	26	854,200,000
고신대학교	13,728,315	0.2938	27,225	1	
대전대학교	13,617,333	0.1683	58,802	1	205,181,818
계명대학교	13,541,934	0.3370	49,197	23	742,154,546
한서대학교	13,347,457	0.3032	48,111	2	82,100,000
한남대학교	13,050,042	0.1545	33,112	1	305,785,700
조선대학교	12,974,878	0.3979	92,272	32	787,151,000
동신대학교	12,830,071	0.1042	57,008	2	164,043,639
전주대학교	12,816,629	0.2015	78,148	4	425,358,306

* 교원양성대, 체육대 제외

대학 경쟁력 (비거점 국립대 vs 지방 주요 사립대)

- **재정:**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비거점 국립대**들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 수준이나, 4~5개의 지방 사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들보다 높은 재정 수준**이다.
- **연구력:** 비거점 국립대의 **연구력**은 거점 국립대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지방 사립대를 제외한 다수의 지방 사립대보다 우수한 편이다.
- **종합:** 7~8개의 지방 사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연구력도 낮은 편이어서 대학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THE Ranking (2022, 2023)

● 2022

순위	대학	순위	대학
54	서울대	1001-1200	가톨릭대
99	KAIST		전남대
122	성균관대		충남대
151	연세대		인천대
178	UNIST		인하대
185	포항공대		전북대
201-250	고려대		서울시립대
251-300	경희대		서강대
	세종대		충북대
351-400	한양대		경상국립대
501-600	GIST	한림대	
601-800	아주대	제주대	
	중앙대	강원대	
	이화여대	국민대	
	건국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순천향대	
	울산대	송실대	
801-1000	부산대	한국항공대	
	영남대		

● 2023

순위	대학	순위	대학
56	서울대	1001-1200	전남대
78	연세대		인하대
91	KAIST		전북대
163	포항공대		부산대
170	성균관대		서강대
174	UNIST		가톨릭대
201-250	고려대	1201-1500	조선대
251-300	경희대		충북대
	세종대		충남대
401-500	한양대		경상국립대
501-600	GIST		한림대
601-800	아주대		인천대
	중앙대		제주대
	건국대		강원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801-1000	울산대		서울과기대
	경북대	순천향대	
	영남대	송실대	

한국 대학 경쟁력 현황

64개국 대상,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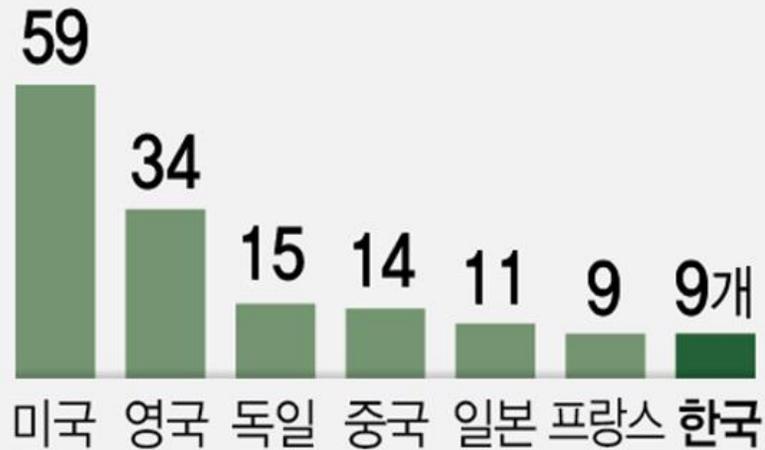
대학교육경쟁력 **47위**

교육경쟁력 **30위**

국가경쟁력 **23위**

영국 QS* 대학 종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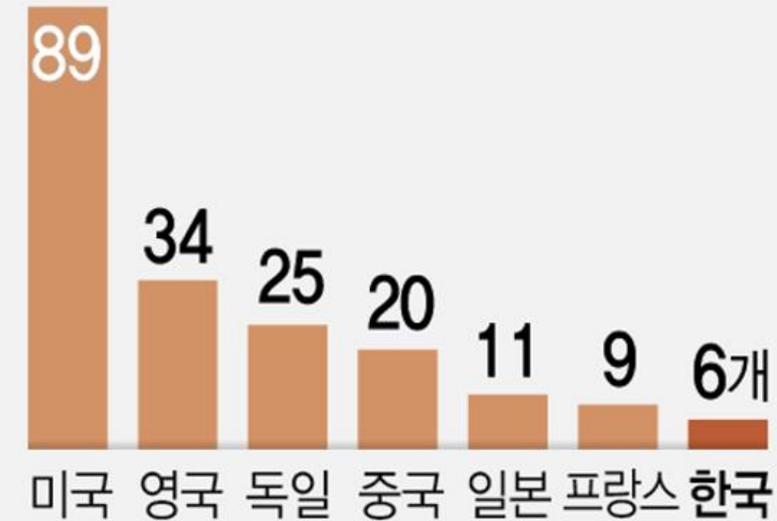
300위 내 대학 수, 2021년 6월 기준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중국 상해교통대 대학 종합평가

300위 내 대학 수, 2021년 8월 기준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하다.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서 지역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낮다.

지방 사립대는 더욱 그렇다.

지방의 위기

생산연령인구 감소 (2017년 대비 2047년)



41.5%
(-391만명)



35.5%
(-142만명)

출처: 통계청, 2019: 15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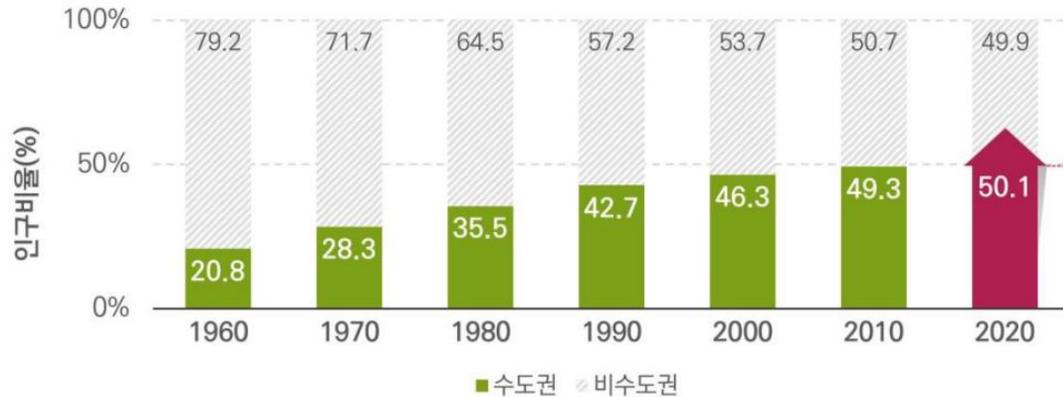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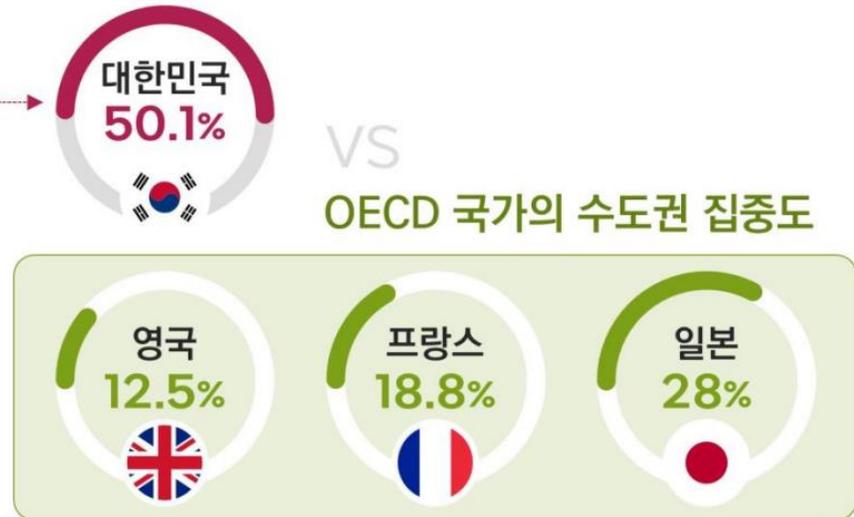


출처: 감사원, 2021

수도권 인구 집중



출처: 감사원(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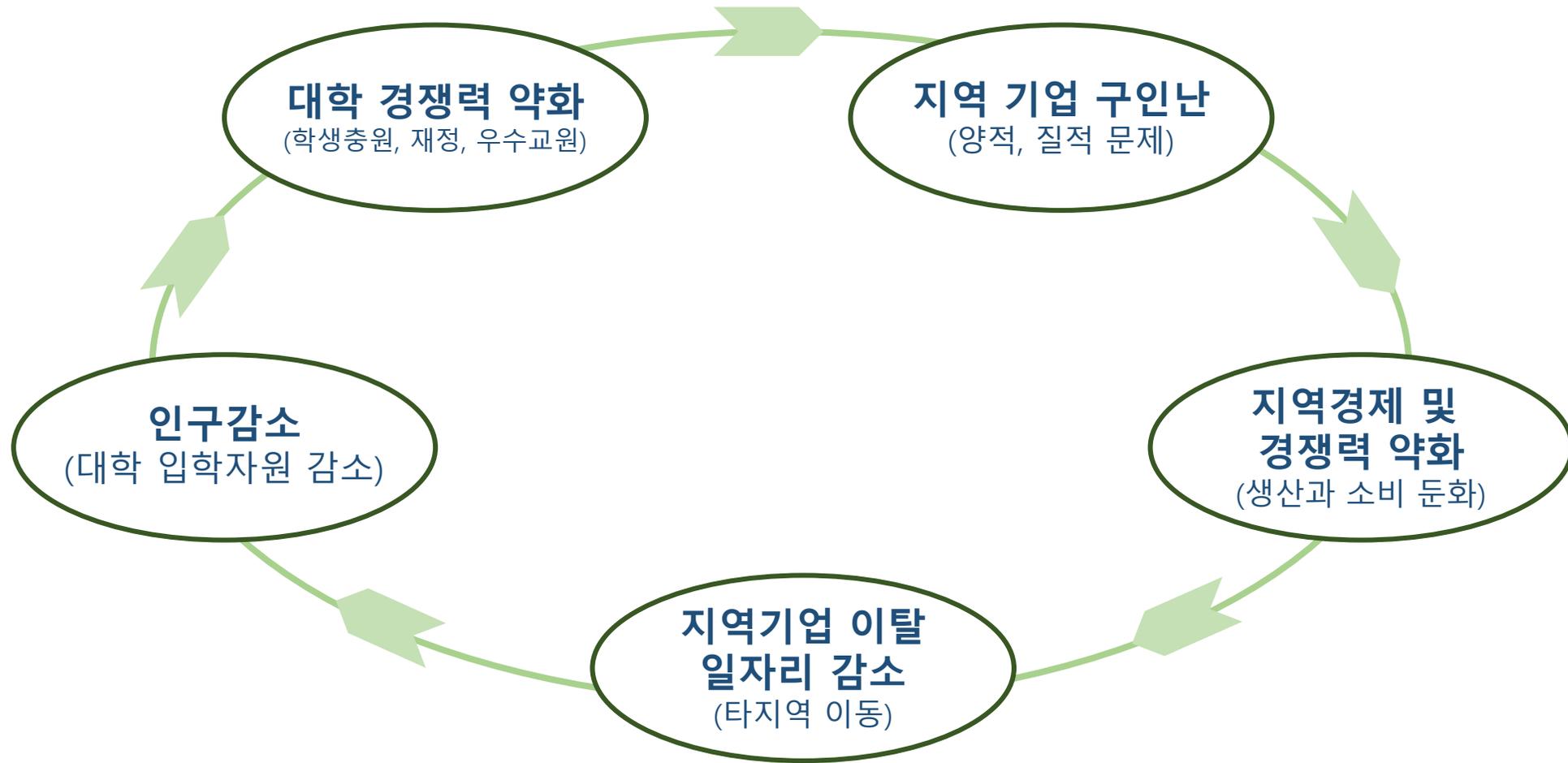
출처: KEDI 182차 교육정책 포럼 (조옥경, 2022. 6. 16.)

지역별 고3학생수 및 입학정원

(단위: 명, %)

권역	시도	일반대학 입학정원	전문대학 입학정원	합계	고3학생수	정원충족률
수도권	서울	74,321	15,354	89,675	72,132	80.4
	경기	37,763	46,133	83,896	115,055	137.1
	인천	6,941	6,585	13,526	24,355	180.1
	소계	119,025	68,072	187,097	211,542	113.1
충청권	대전	18,212	6,843	25,055	13,602	54.3
	세종	2,788	1,100	3,888	3,647	93.8
	충남	27,155	6,334	33,489	18,849	56.3
	충북	15,987	5,618	21,605	13,450	62.3
	소계	64,142	19,895	84,037	49,548	59.0
대경권	대구	9,852	12,774	22,626	20,562	90.9
	경북	24,776	10,550	35,326	21,182	60.0
	강원	15,584	3,536	19,120	12,651	66.2
	소계	50,212	26,860	77,072	54,395	70.6
동남권	부산	29,407	9,244	38,651	24,236	62.7
	울산	3,148	2,613	5,761	10,060	174.6
	경남	12,258	7,395	19,653	28,885	147.0
	소계	44,813	19,252	64,065	63,181	98.6
호남 제주권	광주	13,870	5,900	19,770	14,379	72.7
	전남	8,198	7,110	15,308	15,406	100.6
	전북	15,042	6,301	21,343	16,686	78.2
	제주	2,545	2,512	5,057	5,981	118.3
	소계	39,655	21,823	61,478	5,2452	85.3
합계		317,847	155,902	473,749	431,118	91.0

지역과 지방대학의 악순환



지방이 위기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의 쇠퇴는 수도권에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결국, 지방의 위기는 국가 경쟁력의 위기입니다.

1.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
2.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3. 대학 내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1.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
2.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3. 대학 내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한국경제

13년째 등록금 동결...새학기 앞둔 대학들 '보릿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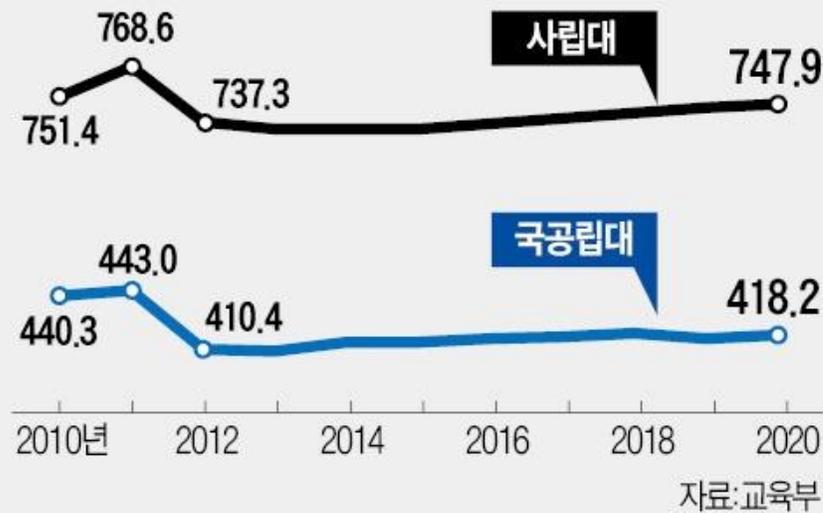
배태웅 기자

입력 2021.01.10 18:08 | 수정 2021.01.11 00:39 | 지면 A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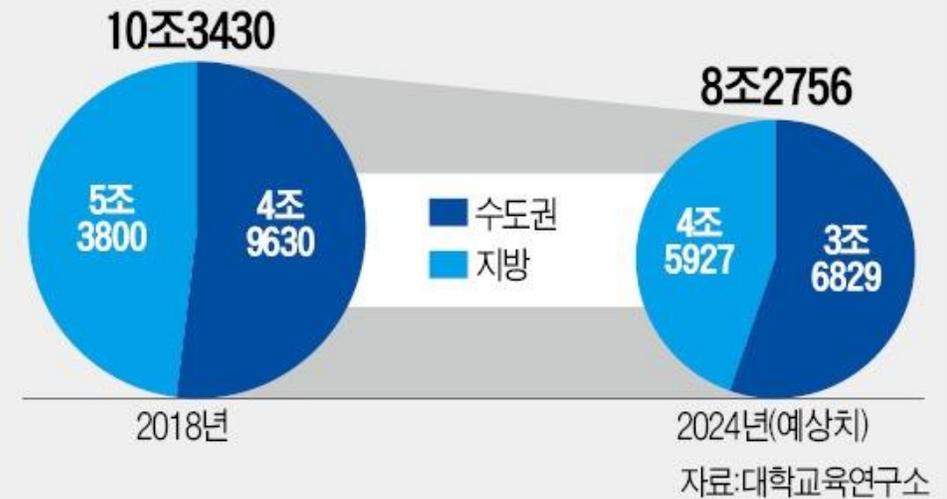
올해도 등록금 '제자리걸음'
서울大, 1.2% 인상 제시했지만
학생 측 거센 반발로 무산

코로나로 외국인 학생 급감 등
학생 수 감소 맞물려 재정난

대학 연평균 등록금 (단위:만원)



학생 수 감소로 줄어든 사립대 등록금 수입 (단위:억원)



2022년 교육부 예산 역대 최대규모 89.6조 확정... 고등교육은 또 '찬밥신세'

✎ 이지희 기자 | ⌚ 입력 2021.12.03 16:05 | 🗨 댓글 0



전체 교육예산 89조 원 중 고등교육 예산은 12조 원
 추가 지원 대학 수도 27곳→13곳 절반으로 대폭 줄어
 고등교육 증액 예산 중 대부분 국가장학금이 차지

• 2022년 고등교육 예산 11조 9009억

- ✓ 국가장학금 4조 6,567억원 (40%)
- ✓ 국립대 운영지원비 3조 8348억원
- ✓ 잔여 예산 3조 1246억원
 - 대학혁신지원 예산 5117억원
 - 학술연구 역량강화 예산 <1조
 - 대학자율 역량강화 예산 1670억원

재정지원의 확대

MK 뉴스

인쇄하기 | 위 소

HOME > 뉴스 > 교육

[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학을 살리자

기자 | 입력 : 2022.10.06 00:04:01



인구 팽창기인 1972년에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체이며 평생교육 플랫폼으로 변신해야 한다.

OECD 평균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초·중등 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의 132%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고등교육 지출은 66%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유치원부터 평생직업훈련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든 국민에게 중앙 교육서비스를 고르게 제공하는 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필립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연간 내국세 총액의 20.79%, 교육세 등을 무조건 교육청에 지급해 교육재정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청의 관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기관에는 지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손대지 않고 등록금을 이렇듯 계속 동결한다면 지방대는 물론 수도권 대학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은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의 위기가 결코 아랫돌 빼서 잇돌 고는 식이나 둘러마기로 비유해서는 안 될 것이다. 14년 동안 지속된 등록금 동결, 학생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이미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된 현실에서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 대학 운영, 평생교육, 학교 이외의 교육 사업 등에 교육재정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교육 내실화, 연구 역량 강화,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2975억원으로 지난해 60조3371억원에서 21조원 늘었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표되는 의무지출 증가율은 법적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경직된 재정구조부터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사나 사후 검증도 거치지 않고 배부되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유아·초·중·고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지원 균형을 위해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는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되는 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극세분 교육세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이를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안 발의 후에는 재정당국과 함께 구체적인 세출 방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14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을 고려했을 때 대학의 수익이 3조6000억원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전국 대학교에 동등하게 배분하면 겨우 적자를 막는 수준의 현상 유지만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대학에 특정사업을 만들어 지원금을 주는 방법보다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자율 조정안을 제시할 시점이다. 지방국립대학 육성에 병행돼 있는 사업예산도 지방사립대나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 분야 경쟁력 강화에 활용돼야 할 것이다. 아직도 세계 100위 이내에 드는 국내 대학을 보기 어려운 것은 해외 글로벌 대학 경쟁력의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세계적 교육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부에서도 변화와 혁신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운동열 전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초중등 예산→고등교육 전용 현실화...이태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발의

초지상배기자 | © 승인 2022.09.14 11: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 고등교육에 활용 법제화
전교조, 교육재정 개혁의 신호탄...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 경경 대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6

발의연월일: 2022. 9. 2.

발 의 자 : 이태규·권성봉·金炳旭
김승수·노용호·류성길
서방수·성인중·송석준
송연식·정경희·조정태
조해진·하영세 의원
(14인)

교육플러스+

(이미지·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교육플러스=지상배 기자]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일부를 고등(대학) 교육으로 편성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재정 개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2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교육재정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 재원을 제외한다. 제외된 교육세 세입액은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한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9>



뉴스
교육

17개 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강력 대응"

'교육감 특별위' 구성 이어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
"개편 추진 유·초·중등 미래교육 전환 고려 않은 근시안적 접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07. 13:58:26



지난 6일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울산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라일보] 제주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맞춰 지난 6일 울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http://www.ihalla.com/print.php?aid=1665140308733094014>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2/10/880733/>

어떤 방식이든 고등교육 재정확대가 절실하다.

1.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
- 2.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3. 대학 내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 학과 수준의 영세성 극복

✓ 교원수 증가 → 취업율 제고, 연구실적 증가

- 학과내 전임교원수 7.36명 증가시 취업률 2.4~4.2% 상승
- 학과 교원수 10인 이상인 경우가 9인 이하인 경우보다 1인당 SCI 논문실적이 0.13편 많음

● 재정의 효율적 투자

- ✓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제공
- ✓ 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여유

● 효율적 업무관리

- ✓ 교직원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경영 및 관리
- ✓ 입체적 학생지도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



- 재정지원 확대
- 규모의 경제
- 자율적 혁신

규모의 경제 실현과 효율화가 필요하다.

규모의 경제 실현: 공유성장형 고등교육 체제 개편

유형	내용	사례	성과	한계
컨소시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협력, 공동 교수제 운영, 교차등록 시스템 운영 학장협의회, 예산협의회 등 협의를 통한 행정 운영 자문서비스, 도서관, 편의시설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사추세츠 5개 대학 컨소시엄 (Amherst College, Hampshire College, Mount Holyoke College, Smith College, U Mass Amher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절감 교육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도적인 대학경영에 한계
연합 (얼라이언스)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소시엄보다 긴밀히 주요 행정 및 학술 기능을 공동 운영하여 운영비용 절감 개별대학은 법적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연합체에 기술, 재화, 서비스를 제공 지원부서 통합, 자원 공유 및 입학, 학사, 경영, 전문인력 공유 얼라이언스 운영진에 실질적인 결정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스컨신 사립대학 연합 (Wisconsi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 WAICU) - 1961년 설립, 23개 대학 회원 - 각 대학 총장이 이사회원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대학 지위향상 규모의 경제 실현 조직적, 문화적 시너지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합체의 아이덴티티 확보 한계
결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간 통합을 통해 전공과정 중복, 늘어나는 교육비용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체제 - 대학들의 집합체를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전환 - 단일 이사회에 의해 운영 - 총장, 부총장, 캠퍼스 총장 등을 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관된 대학 운영 시스템 구축 대학(캠퍼스)별 특성화 및 차별화 대학별 자치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과정에 초기 지출비용이 큼 단일대학과 시스템과의 갈등 잠재
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간 통합을 통해 전공과정 중복, 늘어나는 교육비용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연합대학(Comue, 꼬뮈) 추진 - 2013년 대학원 수준 연합 추진 후 학부 수준의 통합 실험 시도중 - 대규모 대학재정사업과 연결 국내 국립대간의 통합 (경상대+경남과기대 → 경상국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규모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특성화 및 차별성 있는 교육과정과 서비스 제공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과정에 초기 지출비용이 큼 구성원 간의 갈등

● 학령인구 20만 시대를 대비한 장기적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

- 대학 체제 개편시 장기간 재정지원 필요
- 20만 시대를 대비한모집정원 감축 유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담보)
- 지방중소도시 대학의 역할 담보
- 지역대학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대학 자율권 보장과 책무성 강화
- 교원 및 직원 직업안정성 담보
- 교원의 다양한 역할 부여
- 교원 책임 시수 경감

- **국무총리실 산하 '고등교육혁신위원회(가칭)' 신설**
 - ✓ 국립대학발전연구회 (가칭, 국립대학 연합 이사회 역할)
 - ✓ 사립대학발전연구회 (가칭, 재정지원 및 컨설팅)

- **○○○ (국·공)사립대학 연합**
 - ✓ 지역별, 기능별 연합체 구성
 - ✓ 자율적 구성
 - ✓ 국·공립대 참여 개방 가능

1. 고등교육 재정의 확대
2.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3. 대학 내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체제 개편을 통한 대학혁신의 방향

- **글로벌 경쟁력 담보**
 - ✓ 글로벌 교류 역량 강화
 - ✓ 외국인 학자 및 유학생 확보를 통한 대학의 글로벌화
- **수요자 중심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체제 구축**
 - ✓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Teaching → Learning)
 -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포용적 학습환경 구축
-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구축**
 - ✓ 경쟁체제 극복 → 공유, 협력체제로 전환
 - ✓ 상생발전 대학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 혁신과 변화 추구**
 - ✓ 사회요구와 변화에 적극 대응
 - ✓ 수요자 만족도 제고

참고자료: '한국 고등교육체제 재구축 방향과 과제
(임후남,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21-03-04)

새로운 고등교육체제 수립의 전략

●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 지역별 특성화, 대학별, 교육대상의 특성화
- ✓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수요자 중심

- ✓ 학생, 기업 및 지역사회의 요구반영
- ✓ 학문 후속세대 양성, 직업 준비교육

● 건전성 및 투명성

- ✓ 투명한 대학 경영, 정보의 공개로 부정과 비리, 부실경영 방지
- ✓ 공공성 확보

● 균형발전

- ✓ 수도권 vs 지방대학, 대규모 대학 vs 중소규모 대학, 국공립대학 vs 사립대학의 차이를 교육의 불평등 및 형평성 관점에서 격차 해소 노력 필요

지역혁신 및 발전 허브 역할

● 지역 혁신 발전 주체로서의 고등교육체제 구축 경쟁체제 극복

→ 공유, 협력체제로 전환이 필요

- ✓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 지역사회와의 교류 협력 (대학의 지역화)
- ✓ 대학의 체질적 변화 필요

● 지속가능한 産學研官民 협력체제 (地學협력) 구축

- ✓ 지방재정 대학 투자 유도
- ✓ 지자체의 조정자, 촉진자, 중개자 역할 부여
- ✓ 산업계 및 민간이 이해관계자로 적극 참여

지자체-대학-지역기업 지역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 출처 : 이소영·박진경(2021), 지방대학 위기대응 및 상생협력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학령인구 감소로 기능수행이 어려운 대학의 합리적 퇴출 유도**
 - ✓ 필요시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의 적극적 조치
 - ✓ 각 조치별 사후관리 방안 마련
 - ✓ 한계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참고자료: '한국 고등교육체제 재구축 방향과 과제'
(임후남,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IP 2021-03-04)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욱

choi@hanbat.ac.kr

042-821-1544

